

## 111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 (2)

#### 주제: 기업 혁신 영속 경영

중국문화대학교 111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특강 제 2 회 강연에서는 진리대학교 총장인 진기명(陳奇銘) 교수를 초청하여 「기업 혁신 영속 경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진 총장의 전문 분야는 현재 과학 기술에서 가장 강력한 분야 중 하나인 혁신 모델 인공지능 신경망이다. 진 총장은 「혁신 심리학, 지식 관리, 다섯 가지의 혁신 유형」 세 가지 영역에서 기업의 혁신과 영속 경영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의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한다」 명언을 강조하여 혁신은 영속 경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학생들이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을 충실하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비로소 영속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 혁신 심리학

학생들은 모두 대학 졸업 후 빨리 직장을 찾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대학 시기에 가능한 한 빨리 기업들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혁신이라 하며, 혁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당시 혁신을 강조하였으며, 천수이볜(陳水扁) 대통령도 2001년 혁신을 제안하였고, 중국도 2014년 다보스포럼(Davos Forum)에서 「대중 혁신, 만중 창업」을 제안하여 전 세계가 혁신의 이념을 주목하였다.

혁신의 개념은 창업을 이끌어낸다. 혁신은 말로는 쉽지만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혁신이 창업으로 이어지면서 「메이커(maker)」라는 말이 생겨났다. 메이커의 원천은 창의(創意)에서 시작되며, 창업의 모든 요소와 연결된다. 어떤 사람은 창업을 브랜드에 가입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창업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창업의 과정에는 돈과 인재가 포함된다. 돈과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 국가는 과학 기술 발전 정책을 계획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대학생은 필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등학생은 세 가지의 방법을, 대학생은 다섯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다. 대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많이 생각해 낸 이 두 가지의 방법이 더

좋은,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기본 교양이며, 우리의 함양을 높이고,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식 관리

지식을 획득하고 공유하는 것은 관리가 필요하다. 지식 관리를 얘기하자면 오스트리아의 피터 드러커와 일본의 노나카 이쿠지로(野中郁次郎)를 빼놓을 수 없다.

피터 드러커는 1965 년에 혁신의 관념을 제시하였다. 피터 드러커는 지식이 토지, 노동, 자본, 기계설비를 대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전에는 토지가 재산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바뀌었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는 소프트웨어를 팔았으며, 지식과 기술적인 노하우(know how)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피터 드러커의 혁신관 중 가장 잘 알려진 명언은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한다」이다. 이 명언은 우리가 언제나 성실히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능력은 언제나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를 직면하는 것, 사고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들이 우리의 지식이 된다.

일본 학자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을 두 가지로 하나는 암묵지, 또 다른 하나는 형식지로 분류하였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네 가지의 지식 전환 과정을 통해 지식 창조 모델을 나선형 형태로 보았다. 네 가지의 지식 전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암묵지를 암묵지로: 경험을 교류하고 지식 공유에 도달하여 사회화가 된다.
- ② 암묵지를 형식지로: 은유와 유추를 통해 표현하기 어려운 내재적(內隱) 지식의 외현(外顯)을 돕는 것은 외재화(外化)의 과정이다.
- ③ 형식지를 형식지로: 새로운 지식을 결합하여 신제품, 서비스 또는 관리 시스템으로 구체화한다. 이러한 과정은 서로 다른 지식의 결합에 중점을 둔다.
- ④ 형식지를 암묵지로: 일반인에게 친숙한 내재화(內化) 과정으로, 언어와 이야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지식을 개인 인지의 일부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 다섯 가지의 혁신 유형

혁신의 거장인 하버드 경영대학 크리스텐슨(Christensen)은 혁신가들의 다섯 가지 DNA 를 제시하였다. 즉 혁신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① 연결하기:

혁신을 하려면 미친 듯이 사고(思考)하고, 서로 생각을 교환하고 충돌해야 한다.

② 질문하기: 질문이 있어야 한다. 항상 의문을 갖고,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혁신이 가능하다. ③ 관찰하기. ④ 네트워킹: 서로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한다. ⑤ 실험하기.

마지막으로 진 총장은 3M 기업, 진통 과학 기술 회사(珍通科技公司), 커피 체인점 85℃ 등의 기업들을 예로 들어 혁신 과정, 지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